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최종리허설이 16일 오후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상상의 터를 열며'란 주제로 식전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스포츠 대축전 오늘 김천서 광파르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오후 6시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6개 시·도, 해외동포 등 2만3천여명 참가 광주 13위·전남 8위 목표... 열전 7일 돌입

지인 경북이 가세해 종합우승을 놓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리는 개회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등 내외 귀빈과 16개 시·도 및 14개국 해외동포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석한다.

두 단계 상승한 13위를, 41개 전종목에 1천6백5명(선수 1,197명, 임원 408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전남은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8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대회 첫날 광주·전남 선수단은 축구, 테니스, 역도, 볼링, 펜싱, 사이클등에 출전한다.

이고 전남대표 광양제철고는 대구공고와 남자대학부 한려대는 제주선발과 1차전에서 금메달을 향한 첫 경기를 치른다. 테니스에서는 광주의 살레시오여고와 조선대학교가 각각 여고부와 여대부에서 충북 인터넛고, 강릉대와 1차전을 치른다. 핸드볼에선 광주 조대부고와 대전 서대전고와 1회전에서 맞붙는다.

이번 체전은 '함께차 미래로, 하나되어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 16개 시·도와 14개국 해외동포등 모두 2만 3천319명이 참가했다. 육상·축구·레슬링·야구 등 41개 정식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이번대회에서는 대회 5연패를 노리는 경기도와 서울, 여기에 개최



합평다이너스티 '업그레이드'

국내 최초 코스·잔디전문가 대표 영입

새 대표 이준희씨

호남 최초 4 계절 양산디 골프장 합평다이너스티CC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코스관리와 잔디관리 능력을 겸비한 미국 유학파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최고의 명문골프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준희 대표>

이 대표는 "기존의 한국골프장 운영기법에 미국식 합리적 코스관리 기법을 도입해 합평다이너스티 CC가 국내 최고 명문골프장

특히 고객서비스팀 개편을 통해 품격 높은 최상의 고객관리에도 나서 기로해 골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합평다이너스티CC는 지난 10일 코스관리와 잔디연구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준희(38)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94년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원예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에버랜드 골프장 코스설계조경팀에 근무했고, 미국 캔사스주립대에서 골프코스 매니지먼트로 석사학위를, 플로리다대에서 잔디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캔사스 콜버트 힐 골프장 경영관리자와 국제 골프코스매니지먼트(IDM)사에서 골프코스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는 등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다.

이 대표는 "이름을 다하겠다"며 "최단기간내 회원들과 일반골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시스템을 도입해 원가절감과 환경오염방지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연구수 수준의 코스관리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지역토양과 기후, 환경에 맞는 코스관리기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서비스에 대해 이 대표는 "서비스 체제 개편 등을 추진, 내장객이 감동하는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초아 "오! 좋아"

삼성월드챔피언십 우승 신인왕 이선화 공동 8위

'멕시코의 박세리' 로레나 오초아가 새로운 '골프여제' 탄생을 예고했다. 오초아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 캐년코스(파 72·6천4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뽐내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보기 없이 데일리베스트샷을 휘둘러 2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274타)을 2타차로 제친 완승. 7일 전 고국에서 열린 코로나 모렐리아챔피언십을 제패한 데 이어 2연승을 거둔 오초아는 시즌 5승으로 다승 단독선수로 나섰고 21만8천750 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아 시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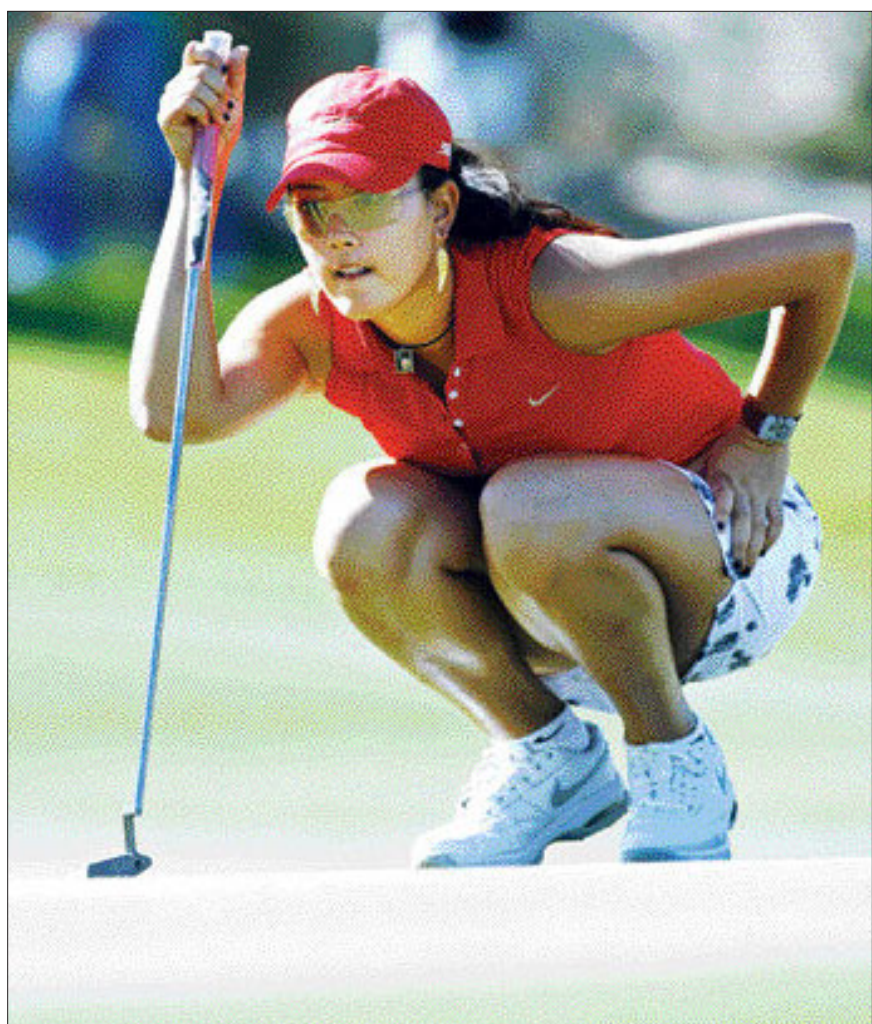
상금을 234만2천872달러로 늘려 상금왕을 거머쥘 전망이다. 20여명이 넘는 선수 가운데 '핵심 전력'만 추려 출전한 '코리아 파워'는 신인왕 이선화(20·CJ)가 공동 8위에 올랐을 뿐 모두 10위 밖으로 밀렸다. 이선화 72타를 친 박세리(29·CJ)는 최종 합계 이선화 288타로 공동11위에 올라 체면치레만 했다. 프로 데뷔전이었던 작년 이 대회에서 실격 당했던 위성미(17·나카골프)는 9번홀까지 버디없이 더블보기 1개와 보기 2개를 쏟아내 약전고투 끝에 3오버파 75타를 쳤다. 최종 합계 5오버파 293타로 17위에 그친 위성미는 작년 대회 때의 아픔을 씻어내지도 못했고 최근 남자대회에서 잇따라 맞붙어 실패 때문에 끓어오른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도 못했다. 위성미는 오는 11월 일본남자프로골프투어 카시오월드챔피언십에서 또 한번 남자 프로 선수들을 상대할 예정이다.

프로데뷔 위성미 '절반의 성공'

올 8개 대회 참가 '톱5' 6회 우승 한차례도 없어 아쉬움

'범상치 않은 선수임에 틀림없으나 기대에는 못 미친다'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에서 치러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공동 17위를 차지하면서 프로 선수로서 첫 시즌을 마감한 위성미에 대한 평가다. 위성미는 작년 이맘 때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전을 가진 이후 LPGA 투어에서 모두 9개 대회를 소화했다. 프로 데뷔무대였던 작년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실격을 당한데다 사실상 프로 선수로 뛴 것은 올해부터인 위성미가 2006년에 치른 LPGA 투어 대회는 8개. 한 번도 컷오프를 당하지 않았고 6차례나 '톱 5'안에 들면서 상금 73만561 달러를 벌어들였다. 만약 LPGA 투어 멤버였다면 상금랭킹 14위에 해당하는 대단한 성과이다. 위성미는 대회당 평균 9만달러의 상금

을 벌어들여 캐리 웹(호주)의 7만여달러를 웃도는 등 순도면에서는 어떤 선수보다 앞선다. 특히 나비스코챔피언십, LPGA챔피언십, US여자오픈 등 3개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5위 안에 든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위성미는 이런 성적을 내어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승컵을 한 개도 품어보지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 톱들이 남자 대회에 출전할 때 마다 받은 '여자대회에서 최고임을 보여준 뒤에 남자 대회에 도전하라'는 비판이 들끓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위성미의 LPGA 투어 대회 우승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하겠지만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골프 기량도 우승하기에는 아직 설익었다는 평가에다 프로 선수로서 갖춰야 할 강한 정신력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경기 운영 등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 캐년코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4번째 홀에서 위성미가 퍼팅에 앞서 그 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욱 '무난한 복귀' 프라이스닷컴오픈 24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프라이스닷컴오픈에서 '투기' 트로이 맷슨(미국)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맷슨은 16일(한국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서머린TPC(파72·7천24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3언더파 69타를 쳐 4

라운드 최종 합계 22언더파 265타로 벤 크레인(미국) 등 공동 2위를 1타차로 따돌렸다. 한국의 '영건' 나상욱(22·코오통)은 이날 3타를 줄여 합계 14언더파 273타로 24위구 룠에 들어 5개월만의 복귀전을 비교적 무난하게 치렀다. 지난 9일 PGA 2부 네이션와이드투어에서 우승한 나상욱은 손가락 부상으로 5월 PGA 투어에 메디컬 익스텐션을 제출했다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정규 투어에 복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